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길러야...

우남희 소장

작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처음 언급한 이래 어디에서고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의 승리 이후 ‘인공지능’과 이와 연계된 ‘4차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차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으로도 예상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로봇 또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고, 로봇에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들에는 위기감이 높다. 실제로 다보스포럼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7세 이하 어린이가 사회에 나갈 때가 되어 갖게 될 직업들 중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일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4차산업혁명의 도전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4차산업혁명이 주는 혜택에 대한 기대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의 불안감이 크다고 한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자녀 인생의 코치 역할을 하였던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그간의 교육열에 더해 우리아이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할지가 새로운 과업으로 여겨져 부담이 된 것이다.

‘창의인재’가 중요하다고 하면 창의성 증진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교육이 인기를 얻는 한국의 현실에서, 4차산업혁명의 실제 없는 불안감 조성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여 안그래도 영유아기부터 놀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의 시간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가 자녀야 할 핵심역량들을 살펴보면, 지능정보 시대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인간다움’ 자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축적된 자료의 조합 결과를 뛰어 넘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창의성 뿐 아니라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건강과 행복을 함양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까지 얻을 수 있을까? 이 시대의 부모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각광받을 인간의 경쟁력, 즉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려 조바심을 내기 보다는 아이에게는 아이다움을 지키고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주는 것이 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과, 친구와 충분히 살부대끼며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하며 놀거나 여유부릴 수 있는 시간이 아이의 감성과 지성을 골고루 자라게 할 양분이 될 수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인공지능의 시대는 오히려 더 인간다움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다움’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른 말로 할 것 없이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이 하는 활동의 목적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이 사교육에 갖혀 점점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